전통 다례 시연 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0 세계 차홈데코전시회'에서 명원문화재단 회원들이 전통 다례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제고사 갈등 재연되나

광주 74개 단체 "시험거부" … 진보교육감·교과부 징계 마찰 우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거부 학생·교사 법대로 처리"

광주·전남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단체 등이 오는 13~14일 치러지는 전국 초(6학년)·중(3학년)·고교(2학년)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때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진보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제고사 거부 교사 등의 징계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그동안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교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입장으로 돌아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7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3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학부모와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무한경쟁교육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되고, 숨막히는 성적경쟁에 학교와 학생은 질식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이번 일제고사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방침인 만큼 그 부작용과 학교의 파행은 극에 이를 것"이라며 시험 거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첫날인 1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정문 앞에서 시험 거부 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순천평화학교 등으로 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무등산 문화 투어를 열 계획이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도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반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날도 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등의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직자(교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흥~제주간 쾌속선 오늘 운항

완도 어민 피해 조사후 보상

양식장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 문제가 완도 어민과 선사 측의 합의에 따라 운항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1일 "장흥 노력도와 제주 성산포를 오가는 쾌속선인 '오렌지호'가 완도 어민과 선사 측의 합의를 통해 예정대로 2일부터 운항된다"고 밝혔다.

여수항만청은 이날 완도 금일·약산면 어민들과 선사인 (주)장흥해운 양측이 합의서에 사인함에 따라 이날 '오렌지호'에 대한 취항을 최종 승인했다. 양측의 합의서는 '쾌속선의 양식장 주변 수역 통과시 저속 운항, 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완도 어민들은 지난 3월 여수항만청이 '오렌지호' 운항을 허가한 것을 놓고 양식장 피해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법원에 '쾌속선 운항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선사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2071t급 쾌속선인 '오렌지호'는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2일부터 승객 500여명과 차량 60여대를 싣고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를 2회에 걸쳐 왕복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당초 1시간40분을 예상했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완도군 해역의 저속운항'에 따라 1시간5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광주~장흥 노력항

시외버스 오늘 개통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를 오가는 쾌속선이 2일 취항함에 따라 광주~장흥 노력항 간 시외버스도 이날 개통한다. 하루 두차례 왕복 운행되며 요금은 1만2300원.

또 1일부터 여수~부산 사상 간 우등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여수(여천)~부산 사상 노선은 하루 6차례 왕복 운행되고 요금은 1만7200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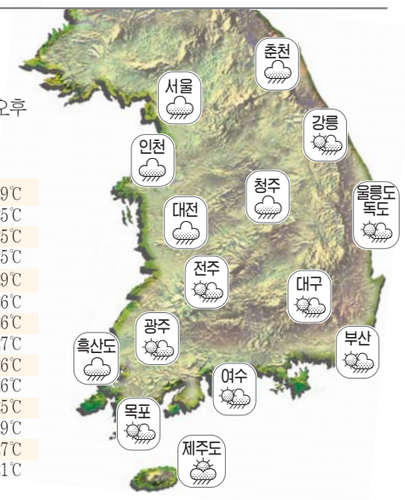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2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23시 01분 / 달짐 10시 31분

폭우 조심!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비	23/29℃
목 포	차차흐려져비	21/25℃
여 수	차차흐려져비	22/25℃
완 도	차차흐려져비	22/25℃
구 례	차차흐려져비	22/29℃
해 남	차차흐려져비	22/26℃
장 흥	차차흐려져비	22/26℃
고 흥	차차흐려져비	22/27℃
순 천	차차흐려져비	23/26℃
영 광	차차흐려져비	22/26℃
진 도	차차흐려져비	22/25℃
전 주	차차흐려져비	23/29℃
남 원	차차흐려져비	22/27℃
흑산도	흐리고비	19/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5:34 17:46	10:57 22:57
여수	00:07 12:23	06:22 18: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 씨						
최저/최고	22/28	23/28	23/28	22/29	21/29	21/28

김흥식 전 장성군수 별세

'장성 아카데미' 대표 브랜드로

김흥식 전 장성군수가 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3세.

장성군 황룡면에서 태어나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한 김 전 군수는 장성 월평초등학교 교사와 전라남도 내무국, 장성군 공보실장, (주)일진 부사장, 전라남도 교육위원을 거쳐 민선 1~3기 장성군수를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 송 여사와 2남 5녀가 있다.

특히 김 전 군수는 자치단체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처음 만들어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장성군'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황식 현 감사원장의 형이며, 김필식 동신대 이사장의 셋째 오빠이기도 하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02-3010-2631)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5시이며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국지성 호우

광주·전남 오늘 밤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30㎜ 강한 비

2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5일까지 이어지며, 광주·전남은 2일 밤과 3일 오전 사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며,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1일 예보했다. 2일부터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70㎜, 남해안의 많은 곳은 100㎜ 이상으로 전망된다.

2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으며, 짙은 안개가 끼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된다.

5일에는 장마전선이 물러나 소강상태를 보이며, 6일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